

제4회 AIPS Symposium: "2010 한국인이 보는 미국과 미국인이 보는 한국"

논의 쟁점 (Victor Cha, Katrin Katz)

1. 미국인들이 보는 한미 동맹 (The U.S.-ROK Alliance): 한미 동맹은 미국이 맺고 있는 여러 동맹관계 중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만이나 일반 미국인들에게도 견고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가는 재검토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 i. *미국인의 80%, 한미동맹이 남북통일 이후에도 필요,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미군의 한국 주둔 지지*-미국인들은 한미동맹의 의의를 평가함에 있어, 중국 세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응답자의 80%가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43%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단지 14%만이 남북한 통일 이후 한미동맹을 종료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ii. 응답자의 54%가 한미 동맹에 있어 중국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모든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08년도 조사에서 중국은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국가로 조사됐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68%) 미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단지 28% (2008년 수치에서 5% 하락) 만이 미국은 중국의 세력을 제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iii. *미국인의 55%, 중국 견제 위해 한미 협조 필요*-미국인들은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65%의 응답자들이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우려"(17%) 또는 "다소 우려"(48%)한다고 말했다. 과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55%) 미국과 한국이 향후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교차분석 결과, 중국 세력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미 동맹 유지와 한국 내 미군 주둔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60%).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본 사람들은 한미동맹 유지와 남북한 통일 이후 미군의 남한 내 주둔에 대하여 33%만이 찬성하였다.
 - iv. 정책적 함의: 중국을 겨냥한 한미동맹 강화 시도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한국인들이 미-중 경쟁에 연루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미-일 삼국의 협력 강화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을 통해 간접적

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할 수도 있다. 아시아 내 미국 대외정책에 대해서, 57%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비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한국과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2. 한국 내 미군 주둔: 미국인들은 한국 내 장기 미군 주둔에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를 보인다

- i. *미국인의 62%, 한국에 미군 장기 주둔 필요*-62%의 미국인들은 미군이 독일, 일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와 같은 국가보다 한국에 장기적으로 “주둔해야 한다 (*should have long term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고 응답하였다.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Global War on Terror” 라고 이전에 일컬어졌던) 의 직접 대상이었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각각 52%와 50%가 장기주둔 해야 한다고 대답함으로써 한국에 비해 10% 뒤쳐진 수치를 보여주었다.
- ii. 한국 내 현재 미군 주둔 병력(30,000 병력이라고 알려짐)에 대해서, 응답자의 50%가 “적당하다 (*about right*)”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2004년도의 34%보다 16%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미군의 병력 수가 “너무 많다 (*too many*)”고 응답한 사람은 52%에서 2010 년도의 34%로 감소하였다.
- iii. 일본과 관련된 비슷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현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병력 수가 “적당하다 (*about right*)” 고 대답한 사람은 2008년도에는 39%에 그쳤던 것에 반해 2010년도에는 47%로 증가하였으며, “너무 많다 (*too many*)” 고 대답한 사람의 수는 55% 에서 44%로 감소하였다.
- iv. 한국 내 미군 주둔에 대한 정책적 함의: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오늘날 한반도 내 미군 병력 수가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용인하는 이상적인 수준 (*goldilocks*)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으며, 58%의 미국인들은 한국 뿐 아니라 다른 해외지역에서 장기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수가 전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about right*). 응답자 중 10%만이 미국이 더 많은 병력을 해외에 주둔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31%는 더 적게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성 관료들은 미군을 해외에 장기 주둔시키고자 할 때, 한국과 일본에 장기 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인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미 국방성의 한국 내 주둔 병사들에게 가족을 동반하여 한국 내 3년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tour

normalization” 계획은 많은 자원 확보가 필요한 프로젝트로서, 이번 조사에서와 같이 미국인들이 한국 내 장기 미군 주둔을 찬성한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북한 핵 문제: 미국인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목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것을 지지한다.

- i. *미국인 50%, 북한 핵 해결이 다른 북한 문제보다 중요*-응답자의 50%는 “비록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보유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협상하는데” 지지를 보였다. (to negotiate an end to North Korea’s nuclear capacity even if it means accepting the North Korean regime and continuing division of the Peninsula) 그에 반해, 응답자의 19%는 한반도 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핵 확산을 야기시킨다 할지라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to bring about regime change even if it may bring in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18%는 현재 북한 정권과 핵보유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to maintai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if it means accepting North Korea’s current regime and nuclear capability)
- ii. *미국인의 62%, 미국정부가 북한 지도자 만나야*-62%의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2008년도의 68%에 비하여 하락한 수치이긴 하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흥미로운 점은, 62%의 응답자들은 이란의 지도자와도 미국이 만나야 한다고 했으며, 이는 적대국과의 협상 지지가 북한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 iii. *북핵 문제 관련 정책적 함의*: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이 20년 넘게 추진해 온 대북 외교정책에 지지하는 입장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것을 북한과 관련된 다른 어떤 정책보다 더 우선시 하였다. 또한, 미국인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 협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자 회담 관계자들에게 있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협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치가 높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일 것이다. 양국의 관료들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북한에 대해 너무 유약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너무 관대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6자 회담 관계자들은 대중 논평이나 공식발표문에서 협상을 지지하는 높은 수치를

인용함으로써 6자 회담에 대한 대중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4. 남북한 갈등: 미국인들은 UN이 담보하는 다자주의적 접근 하에서, 북한의 침략 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지지한다.
 - i. *미국인 56%, 북한의 남침시 미군 투입 반대, UN이 주축이되는 다자주의적 개입 원해 (61%)*-응답자 중 56%가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미군의 투입을 반대한다고 대답하였고, 미군 개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40%에 달했다. 그러나, 북한의 한국 침략 시, UN이 주관하는 군사행동에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하는 군사적 개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1%가 찬성하였으며, 34%만이 이를 반대하였다.
 - ii. *미국인 79%, 미국이 필요이상의 세계경찰 역할 하고 있다*-미국인들은 미국의 일방주의 (unilateralism)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국적 군사행동과 함께 하는 방안에 더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79%의 응답자는 “미국은 필요 이상으로 세계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 (The U.S. is playing the role of world policeman more than it should be) 는 말에 동의하고 있다.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1%가 “미국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The United States should do its share in efforts to solve international problems together with other countries)고 응답했다. 8% 만이 “미국은 국제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독보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9%는 “미국은 국제 문제에 있어 대부분의 노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iii. *미국인 67%, 천안함 사건은 남북한간의 문제, 미국 직접적 개입 반대*-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발생 시, 응답자 중 67%는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하되, 이를 한반도 분쟁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충돌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strongly criticize North Korea for its attack, but should view it as one in a series of incidents in the North Korea-South Korea conflict over disputed waters.) 단지 27%만이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This was an act of unprovoked aggression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join South Korea in punishing North Korea.)
 - iv. 남북 갈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 이번 조사 결과는 상호방위조약 내용과 배치된다. 즉,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온다면, 한국은 미국에 조약상의 의무를 다하여 한국 방위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북한과 한국 간 충돌이 있을 시, 미국인들이 다자주의적 협력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UN이 한반도 비상 사태 시 개입할 여지가 많겠으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더 많은 미군 병력 투입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U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인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소속되어있던 UN군 사령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천안함 사태의 여파에 대처하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천안함 사태가 단지 또 하나의 남북 간 충돌일 뿐이며,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미국 내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적 대응은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다국적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입장을 더 설득력있게 전달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 상원 통과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미온적이다.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에 있어 일반적인 현상이며,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i. *미국인의 44%, 한미 FTA 상원통과 지지-44%*의 응답자가 한미 FTA의 상원통과를 지지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9.5% 실업률과 대규모 무역적자로 휘청이는 현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FTA 에 대해서 미온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ii. 한미 FTA의 정책적 함의: KORUS FTA의 기준을 지지하는 정책입안자들은 FTA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대중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FTA에 대한 지지는 상대 국가가 공정무역을 하는가 또는 불공정 무역을 하는가 하는 인식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공정무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61%는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이 불공정무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27%만이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한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일본, 인도, 중국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국가가 공정 무역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FTA에도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FTA 에도 비호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과, 그 우려가

자유무역과 세계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FTA로 인한 미국의 수출증대와 이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부각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시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KORUS FTA가 무역과 투자 면에서 수십억 달러를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무역 전환(trade diversion)의 해로운 경제적 영향을 부각시킬 필요도 있다. 무역 전환은 한국과 같이 미 의회에서 무역협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먼저 비슷한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다.

6. 한국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과 맺어온 견고한 동맹관계와, 1950년 한국전쟁시 한국을 지원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i. *미국인의 40%, 한국은 비민주국가: 한국에 대한 지식 절대부족-놀랍게도, 한국이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국가로 전환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응답자의 51%만이 한국이 민주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으며, 40%는 한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 ii.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신도를 거느린 종교가 무엇일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50%는 "불교"라고 대답했으며, 단지 19%만이 "기독교"라고 올바른 응답을 하였다. (1995년 조사에 따르면, 26.3%가 기독교이며, 23.2%가 불교이다)
 - iii. *미국인의 71%, 한국이 미국의 10대 교역국임을 몰라-71%의 응답자들은 한국이 미국의 10대 교역국임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46%가 한국이 미국의 20대 교역국 안에 든다고 생각했으며, 25%는 한국이 20대 교역국 안에도 못 든다고 생각했다.*
 - iv. 한국의 미국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정책적 함의: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정보 부족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1) 미국이나 한국이 미국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시,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정보 부족은 이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를 테면, KORUS FTA는 미국인들이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이해 관계를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George W. Bush 정부 하에서 비준이 더 용이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민-군 관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국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저항감이 표출될 수 있다. (ex. 2002년 두 명의 14세의 한국 소녀들이 미군 장갑차에 숨졌을 때나, 2008년 미국 소

고기 수입파동 시기 한국인들의 저항)

한국에 대한 정보 부족은 또한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를 테면,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이 민주국가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이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인들이 한미 양국의 무역의 중요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KORUS FTA 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지시기반을 마련한다면, 정책 실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측 논의 쟁점 (김지윤, 우정엽)

1. 남북 관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93.5%) 현재의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i. *한국인의 93.5%, 현 남북관계 악화, 그 책임은 북한에게 (74.4%)*-응답자 대부분은 (74.4%) 북한이 남북 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고등교육을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이상) 받은 응답자들은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76.4%가 현재 남북관계 악화에서 북한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70.4%가, 그리고 대학원 학력 이상의 70.8%가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나이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81.2%와 50대의 77.1%가 북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데 반해, 젊은 세대에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30대의 68.1%, 20대의 71.2%) 젊은 세대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서 더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0대에서 6.4%와 7.2%가 각각 한국과 미국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20대와 30대는 12.6%와 13.6%가 한국과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스스로가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과 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드러났다. 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하여 진보성향의 70.4%가 북한에, 13.9%가 미국에, 12.9%가 한국에 각각 책임을 돌렸고, 보수성향의 79.1%가 북한에, 8.6%가 미국에, 그리고 7.2%가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 ii. *한국인의 68.7%,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지금까지 일각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지난 3월에 있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 그러나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8.7%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믿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아졌다. 20대의 62.1%와 30대의 64.4%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50대의 71.6%, 60대의 74.4%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의 소행을 확신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고졸이하 학력의 71.5%, 2년제 대학 학력의 68.3%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년제 대학 졸업의 62.8%, 대학원 학력의 61.5%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념적 분석틀을 사용하였을 때, 진보성향의 64.7%가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보수성향의 74.8%가 북한에게 책임을 돌렸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대답한 비율과 현재 이명박 정권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76.8%)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이었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8%에 그쳤다. 반면, 현 한국 정부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의 64.4%가 천안함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돌렸으며, 10.9%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 iii. *한국인의 60%, 남북간 전쟁 가능성 낮아, 북한의 경제적 곤란 (41.9%), 미국의 개입 우려 (32.3%)가 주된 이유*-응답자의 60%는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40%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 41.9%는 그 이유로 북한이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북한 경제가 너무 부실하다고 답했으며, 32.3%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시, 미국이 개입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iv. *한국인의 66.5%, 남북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북한* -흥미로운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날 것 같은가"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차이였다. 응답자의 42.8%가 북한이 현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23.7%는 북한이 무력에 의하여 한반도를 통일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위 두 가지 응답의 경우,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이 북한에게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66.5%) 한편, 33.1%의 응답자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원인이 미국이나 한국에 있을 것이라 대답했는데, 이 중 17.4%가 현재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강경한 조치를 심화시키면서 압박을 심하게 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고, 15.7%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하여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나이에 따른 분석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전쟁의 가능성을 미국이나 한국에서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57.4%의 20대 응답자가 전쟁이 발생할 시,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일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42%가 한국이나 미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50대에서는 73.7%, 60대에서는 72.9%가 북한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단지 26.3%의 50대 응답자와 26.5%의 60대 응답자만이 한국이나 미국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 북한 핵 문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75.4%) 북한의 핵 보유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위협적”-16.9%, “다소 위협적”-58.5%)

i. *75.4%의 한국인, 북한의 핵 보유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 -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핵 보유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위협적”-16.9%, “다소 위협적”-58.5%)

ii. *한국인의 북한 핵 위협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과 연관 있어*-흥미롭게도, 북한의 핵 보유를 위협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미국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인식하는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호의적인 응답자의 77.3%가 북한의 핵에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하였으며, 22.6%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미국에 비호의적인 66.8%의 응답자는 핵무기에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하였으며, 33.2%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은 호의적인 그룹과 비호의적인 그룹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 군사력에 대한 확신 정도와 북한 핵에 위협받는 정도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군사력에 확신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78%가 북한 핵에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하였으며, 한국 군사력에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67%의 사람들이 북한 핵을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ii. *한국인의 65.7%, 한반도 핵 위기는 북한의 책임*-65.7%의 응답자들은 한반도 내 핵 위기는 북한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념적 차이에 따라서는, 보수 성향의 67.5%가 이와 같이 대답하였으며, 진보성향의 58.8%가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견 한국 정부와 미국에도 책임을 돌리고 있다. 10.6%의 보수성향이 한국이 한반도 핵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한 데 반해, 진보성향에서는 18.1%가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응답 차이는 미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더욱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49.4%는 북한에게, 33.5%는

미국에게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미국에 호의적인 응답자의 70.5%가 북한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고 하였으며, 단지 11.7% 만이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 iv. *북한에 대한 대응법은 보수와 진보간에 엇갈려*-응답자의 41.4%는 남북한 간 경제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핵위기를 타계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며, 36.2%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핵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체제 유지를 보장 해야 한다거나, 북한에 지속적인 군사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3.3%와 9.0%에 그쳤다. 북한에 대한 대응법에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 간 엇갈린 응답이 보였다. 진보와 중도 성향은 각각 45.2%와 42%가 북핵 위기에 남북 경제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보수성향에서는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5.0%였다.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은 강경한 접근(41.7%)보다 온건한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58.3%), 보수성향은 온건한 접근(49.2%)을 강경한 접근 보다 (50.7%)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한국인의 55.6%, 한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해야*-55.6%는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고 말한 반면, 44.5%의 응답자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보유 선호에 있어서는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한미 관계: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네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꼽았다.

- i. 응답자의 72% 가량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으며, 30% 만이 현재의 한미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50대의 76.7%, 60대의 76.4%), 보수성향일수록(75.2%) 현재 한미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0대의 68.7%, 30대의 68.4%가, 진보성향의 68.9%가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현재 한미관계를 평가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호의적인 응답자들이(79.8%)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48.4%) 현재 한미관계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 *한국인의 87.3%, 한미동맹은 미래에도 필요*-87.3%는 미래에도 한미 동맹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지 12.8%만이 한미 동맹이 향후 불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진보와(86.5%) 보수(86.9%) 양 쪽 모두에서, 미래에도 한미동맹은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 iii. *60%의 한국인,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것-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 말한 사람들 중 90%는 이 경우 한미 동맹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의 83%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 역시 한미동맹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을 “매우 위협적”이라고 말한 사람의 91%와 “다소 위협적”이라고 말한 사람의 88%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v. 진보성향의 61.6 퍼센트는 미국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보수성향에서도 과반수인 50%가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4. 군사적 역지력: 많은 한국인들은 (76.9%) 한국의 군사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i. *한국인의 76.9%,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한국인들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전쟁을 감행할 시, 북한을 물리칠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6.9%는 미국의 개입 없이는 북한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 이를 한국이 막을 능력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고등교육을 받았을 수록 (대학원 학력 이상의 34.6%,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20.9%)가 한국의 군사력에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 이외의 다른 요소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확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76.8%의 한국인,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이 전쟁을 개시하지 못하도록 막을 역지력 없어*- 많은 한국인들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의 도움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을 군사적 역지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38.5%) 가장 큰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21.6%) 가장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절반의 한국인, 미국 핵우산 믿지 못해*-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 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의견은 거의 양분되어 있다. 응답자의 50.9%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침략할 시, 미국이 핵무기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49.1%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념적 차이는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

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51%가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에 비우호적인 사람들의 38%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